

## 쿨맵시 남성복 비즈니스웨어 경향에 관한 연구

이 민 선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일상 속의 복장 문화에 관한 재고를 통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복장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정부는 “쿨맵시(cool-mapsi)”라는 기후 적응형 비즈니스웨어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생활문화 혁신 운동을 시작하였다. “쿨맵시”는 시원한 옷감을 사용하여 간소한 형태로 제작한 여름철 비즈니스웨어로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건강도 증진하는 친환경패션이다. 노타이 및 간소복 차림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2℃ 높일 경우 연간 160~29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약 3,000억원의 비용절감이 추정된다. 쿨맵시 디자인 기본 방향은 에코 하이테크(eco-hightech)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웨어를 캐주얼화함으로써 비즈니스웨어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 해외콜렉션 사례를 보면 반바지 형태나 스니커즈, 반소매의 재킷, 씨쓰루 소재의 셔츠 등 훨씬 더 이전의 비즈니스웨어로부터 벗어난 룩이 제안되고 있다. 쿨맵시 디자인 활성화 방안은 산업적 측면, 생활적 측면, 문화의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즉 쿨맵시 디자인 개발 및 섬유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며, 의류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는 불편하더라도 더운 환경에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인체의 기후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웨어의 역사는 의복의 역사 속에서는 매우 짧은 시기임을 인지하고, 기후 변화에 걸맞는 새 시대의 아름다움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어: 쿨맵시, 기후 변화, 산업, 생활, 문화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선발과제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접수일: 2010년 11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0일

교신저자: 이민선, minsun@smu.ac.kr

## I. 서론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1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수인 10만 여명 보다 더 많은 수치며 기후변화가 전쟁보다 인류의 미래에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sup>1)</sup>

기후변화 문제는 현대 지구촌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지난 7월초 이탈리아의 중세 유적도시 라퀼라(L'Aquila)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경제국을 초청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고, 특히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보다 2°C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의무를 정하고,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기술도 생겨나고,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를 식힌다는 지구 공학도 등장했다. 일본 등 발 빠른 국가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한편 자국의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sup>2)</sup>

한편, 미국 콜로라도(Colorado) 대학의 마이클 그랜츠(Michael H. Glantz) 교수는 '기후변화와 국제 형평성'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확실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경고하고 "과학기술에 의존한 공학적 기후변화 해법은 선진국들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연 기후의 극단적 상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 왔고, 기후변화의 사회적 함의 특히 '기후 정의' 분야에 정통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마이클 그랜츠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능력이 없어 무임승차하거나 감축 능력이 있으면서도 공짜로 짐을 싣겠다는 나라들"이

라며 탄소세와 탄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준, 탄소포집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가져올 불평등과 악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컨대, 탄소배출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해 제품 당 일정한 비용이 추가된다면 이는 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므로 불공평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는 과학·정치·사회적 문제이자 정의와 윤리의 이슈임을 인식하고 지구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정성과 차이를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sup>3)</sup>

엘레인 발도프(Elaine Valdivia) 여사는 NGO와 유엔 공보처간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전임 의장으로서 국경을 초월한 NGO들의 협력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현재 세계 물 기구(The World Water Organization), 국제 평화문화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 Culture of Peace), 국제 평화 대사(International Peace Ambassadors) 등의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NGO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sup>4)</sup>

이 외에도 예술가들도 기후변화대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고 있다. 예술은 인종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기후변화와 예술이 잘 결합할 경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는 코펜하겐회의에서 "예술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었다. 광고아티스트 이제석씨의 작품 『코끼리 똥』, 몸짓예술가 유진규씨가 『위 아 더 CO<sub>2</sub> 월드(We are the CO<sub>2</sub> World)』를 공연 등이 그것이다.<sup>5)</sup>

이처럼 국가적, 과학적, 산업 기술적 차원 그리고 예술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친환경적인

삶을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 상업, 수송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률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산업 분야보다 감축비용이 낮고 감축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인 의생활 속에서 변화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실제로 노 타이(no-tie)의 캐주얼 차림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2℃ 낮춰 연간 160만 톤에서 2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속의 복장 문화에 관한 재고를 통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복장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패션 업계의 이슈인 “쿨비즈(cool-biz)”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건강하고 윤택하며 안전한 생활의 요소로서 한국형 기후 적응형 복장 문화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더 나아가 한국형 기후 적응형 복장을 세계화함으로써 전 세계적 친환경 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동시에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소비생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무엇인가?
2. 의생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무엇인가?
3.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의 복장문화 특히 남성 비즈니스웨어(business wear) 문화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으로는 정부의 정책, 업계 현황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문헌 등을 통한 인문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비생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2009년 6월 독일 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의무당사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80% 감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중기적으로는 영국은 2010년까지 23%, 일본은 8%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한국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한국은 분야별로는 쿨맵시(cool-mapsi), 푸드마일리지(food milage), 탄소제로(zer)건물 등 의식주 소비개혁, 탄소제로 도시 건설, 대중교통 이용 확대, 물류 혁신 등의 도시/교통 물류개선, 에너지 효율 극대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육성, 자원 순환형 경제 체제 확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경제 혁신,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하는 자연에너지 이용증대의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의생활과 밀접한 생산자 책임 제도 및 탄소 걱정 표시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 1) 생산자 책임 제도

최근 그린 비즈니스 트렌드(green business trend)를 살펴보면 환경과 관련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녹색 소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녹색 혁명이 각 산업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품 및 조제 공정상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포장재 재질이 변화하고 있다.<sup>7)</sup>

EPR 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 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의복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이 의무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sup>8)</sup>

## 2) 탄소 적정 표시 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는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소비·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유럽 소비자 83%가 상품구입 시 그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3%가 상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탄소라벨링(labeling)”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7%는 환경적인 측면이 품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는 환경적인 측면이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sup>9)</sup> 영국에서는 티셔츠에 대한 탄소라벨링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case-study)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Eco-Product 2009』 전시회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공개하였다. 세계 각국의 대형 유통매장에서 탄소라벨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월마트(Wall-Mart)가 5년 이내에 전 제품에 대해 탄소라벨을 부착할 방침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현재 약 1,000여개의 의류에 카본 리덕션 라벨(Carbon Reduction Label)을 부착하여 테스코(TEESCO)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sup>10)</sup>

## 2. 의생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 1) 쿨맵시

#### (1) 정의

지난 6월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복장

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쿨맵시”라는 기후 적응형 비즈니스웨어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생활문화 혁신 운동을 시작하였다. “쿨맵시”는 시원한 옷감을 사용하여 간소한 형태로 제작한 여름철 비즈니스웨어로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건강도 증진하는 친환경패션이다.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저감 국민운동(TEAM-6%)에 착수하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추진한 복장 개선운동인 “쿨비즈”라는 기후 변화 복장 운동을 실천하여 에너지 절감과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여름에도 정장(긴팔셔츠)을 착용하는 오랜 관습을 혁신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생활문화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노타이 복장은 체감 온도를 2℃저하시킴으로써 냉방비를 6%이상 절약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쿨비즈”라는 용어는 쿨 비즈니스(cool business)를 약어화한 일본 용어로 일부 언론에서 거부감을 지적한바 있어 쿨비즈 용어를 친밀감이 있으며, 쿨비즈 운동을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미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이 토의되었다. 2009년 5월 학계, 의류업계, 유통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쿨맵시 정책 포럼이 구성 운영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쿨맵시 복장 캠페인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국민 공모전에 2,800여건이 응모되어 최종 쿨맵시라는 용어가 선정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영어 ‘cool’과 옷을 차려입은 모양새·스타일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시’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쿨맵시의 요건으로 비즈니스 웨어로서 갖추어야 할 격식과 지구의 온난화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할 청량감을 들 수 있다.<sup>11)</sup>

#### (2) 경과 및 기대효과

환경부는 쿨맵시 운동을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

민 실천운동(녹색생활 실천 확산 캠페인,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줄이기 및 직장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쿨맵시 복장에 대한 범국민 인식 및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생활 속 실천으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2010년 쿨맵시 운동의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정립하였다.

환경부는 2009년 5월 쿨맵시 정책포럼을 구성 운영 중이며, 쿨맵시 복장 캠페인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여 쿨맵시라는 용어를 선정하였다. 매년 쿨맵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주제발표 및 종합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심포지엄과 병행하여 쿨맵시 착장 방법 및 효과 등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쿨맵시 동영상 제작 및 옥외전광판 홍보, 쿨맵시 온라인 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쿨맵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의 확산으로 노타이 차림은 체감 온도 2℃를 낮춰 냉방감소 및 온실가스 발생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지나치지 않은 냉방과 노타이 복장은 인체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제 효과 발생으로 녹색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노타이 및 간소복 차림으로 실내 냉방 온도를 2℃ 높일 경우 연간 160~29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약 3,000억원의 비용절감이 추정된다. 일본은 쿨비즈 캠페인의 최대 경제 파급효과를 7,233억엔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2)</sup>

## 2) 쿨맵시 디자인 전략

### (1) 비즈니스웨어의 탄생

19세기 들어 남성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고대의 조각상을 모델로 하는 넓은 어깨와 근육이 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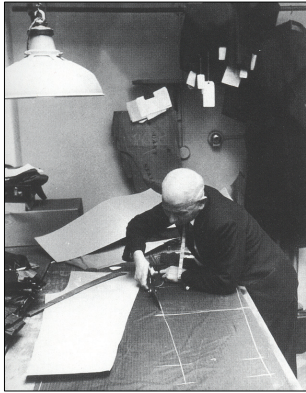
달된 가슴으로부터 점차 가늘어져 날씬한 배와 가는 허리에 긴 다리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sup>13)</sup> 이러한 인체미는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가장 존엄하고 기본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이성이라는 부르조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sup>14)</sup>

이 시기에 정립된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화이트 셔츠는 강하고 단순한 형태로서 당시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자기 절제력이 강한 남성성을 표현하였다.<sup>15)</sup> 산업혁명 이후 남성은 인위적인 생산을 하게 된 반면에 여성은 자연적인 생산을 맡게 되었다. 벗은 몸은 야만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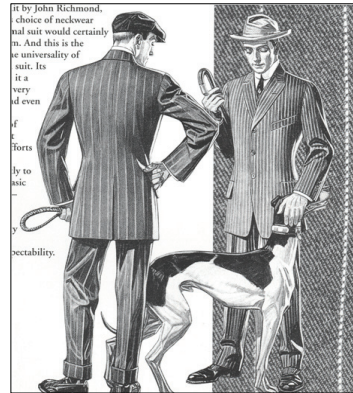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예술작품은 관습적으로 남성을 누드로 표현하였다. 18세기 말의 영국 재단사들은 고대의 남성 누드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의 한 방식으로 2차원적 조형성을 갖는 착장상태의 누드를 재창조해냈다.<sup>17)</sup> 수트의 입체적 구성 및 관절에 따른 부분 제작과 각 부분의 합체로 이루어진 외양은 착용자가 어떠한 동작을 취하더라도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이며, 신체와 의복 간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동작 후에도 인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sup>18)</sup>

이 시기 남성의 아름다움은 ‘힘’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남성은 강하게 발달한 가슴과 어깨를 가져야 했다.<sup>19)</sup> 남성의 바지는 남성다운 힘과 활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한 디자인이다.<sup>20)</sup> 긴장한 남성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목 부위를 강화하고자 뾰뚱한 칼라와 넥타이의 매듭 등이 부가되었다.<sup>21)</sup>

남성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트의 내부는 전체적 구조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강조되지 않은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수트는 장식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형태임을 표명하였다. 수트는 전혀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차림을 표방하였으며, 복식에서의 장식적인 면보다는 의



<그림 1> 수트 제작 과정  
(출처: 『The Man of Fashion』, 1997, p.14)



<그림 2> 남성 수트  
(출처: 『The Man of Fashion』, 1997, p.40)

복의 재료의 질과 맞음새에 더욱 치중하였다  
<그림 1>22)

수트의 색채는 남성을 문화의 기획자로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산업화된 도시의 철제 풍경과 공장의 연기 등을 상징하는 검은색 혹은 어두운 회색에 가까운 무채색이 주로 이용되었다. 대도시의 공기는 공장에서 나온 매연으로 매우 더러웠으며, 밝은 색의 의복은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되었다.<sup>23)</sup>

수트에 사용되는 면, 망, 양모 등의 자연 소재는 남성이 자연의 정복자임을 상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sup>24)</sup> 수트의 문양은 주로 스트라이프 혹은 두드러지지 않는 체크나 헤링본 등 직선을 이용하는데 이는 남성의 이성 중심적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그림 2>.

## (2) 비즈니스웨어의 현황

비즈니스웨어의 요건은 권위와 멋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이 디자인 요소인 형태, 소재, 색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현재 비즈니스웨어는 수트와 셔츠, 넥타이로 구성되어 있다. 수트는 직선적 실루엣에 테일러드 칼라, 어깨에 패드 및 각종 심지로 바디스가 구성되어 있고, 바지는 발등의 덮는 길이이다. 셔츠의 칼라는 셔츠칼라 형태

이고 손목은 커프스로 구성되어 있다. 넥타이는 다양한 색상과 재질로 이루어져 단순한 수트에 장식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즈니스웨어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폐쇄 형태이며, 입체구성으로 되어있어서 시각적인 착시로 체형 보정효과를 볼 수 있다. 색채 면에서는 흰색 셔츠의 세퍼레이션 효과로 넥타이 배색이 용이하다. 소재 면에서는 모소재로 구김이 덜가고 흐르는 실루엣으로 키가 커보인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입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심지, 패드 등의 각종 부자재 사용으로 두께가 증가하고, 넥타이, 칼라, 커프스, 발등을 덮는 길이의 팬츠 등이 폐쇄 형태로 이루어져 체온을 상승시키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색채 면에서는 저채도, 저명도의 수트가 심리적 으로 온열감을 증가시키고 물리적으로는 열흡수량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소재 면에서 수트의 모섬유는 섬유 잔털이 많아 온열감을 증가시키며, 셔츠의 면섬유는 다림질로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 III. 쿨맵시 남성복 비즈니스웨어 경향

남성복 비즈니스웨어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가장 많은 복장문화이다. 섬유 면에 있어서 온열감을 증가시키며, 다림질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디자인상으로는 폐쇄적인 구조와 심리적 온열감과 열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색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쿨맵시 남성비즈니스웨어의 기본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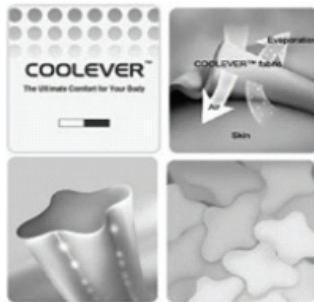
#### 1. 쿨맵시 남성복 비즈니스웨어 기본 방향

##### 1) 에코 하이테크(eco-hightech)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즉 스트레치 섬유를 사용하여 구김을 방지하고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락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안감, 심지, 어깨 슴, 포켓팅 등에 매시소재의 부자재를 사용하면 20%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끈적임 해결로 쾌적감 및 청량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땀은 외부로 방출하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순환구조의 첨단 공법으로 개발된 원단을 사용하여 쾌적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 흡수, 흡습, 속건 기능은 쾌적감의 주 결정요인으로, 개발동향은 모세관원리를 이용한 원사, 실의 다공구조, 중공섬유구조, 양자복합구조가 있다. 직물단계에서 흡수성을 부여하는 것과 직물을 다중구조화하는 것 등이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쿨맥스이다. 유사한 기능성 원사로는 휴비스의 “쿨에버”, 효성의 “에어로 쿨”, 코오롱의 “쿨론” 등이 있다. 이들 원사들은 독특한 4채널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재로, 4개의 채널을 통해 피부로부터 배출되는 땀을 소재의 바깥쪽으로 신속하게 배출시킨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된 수분은 일반섬유보다 20%이상 넓어진 표면적을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로 증발됨으로써 피부의 쾌적성을 유지시키는 소재이다<그림 3>25)

주위 온도 변화시 열의 이동을 일으켜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물질을 함유한 무수한 마이크로 캡슐을 원단에 증착하는 상변화 물질을 원단 제작시 활용하여 온도 변화를 막아 쾌적감 및 청량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체온 조절 섬유는 “아웃라스트”이다. 이는 미 우주 항공국에서 우주인들의 우주 탐사 시 외기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소재다. 현재는 우주복, 미 해군 특수부대 등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민수용 및 국방



<그림 3> 순환구조 첨단 공법의 원사-쿨에버  
(출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혁신포지엄」, 2009, p.69)



<그림 4>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원단-아웃라스트  
(출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혁신포지엄」, 2009, p.77)

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섬유는 보온 기능은 열조절이 가능한 P.C.M(Phase Change Materials)을 이용한 상변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P.C.M 물질을 마이크론 단위의 캡슐에 넣어 체온이 상승하면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축적하여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 체온이 하강하면 고체로 변하면서 축적된 열을 방출하므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그림 4>.<sup>26)</sup> 또한 세라믹 섬유는 자외선 차단 및 UV 차단, 적외선 반사 및 열차폐효과를 가져와 체감 온도의 4℃ 감소효과를 가져다준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냉감이나 체온 조절 기능 섬유에 대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친환경 소재의 개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2) 비즈니스웨어의 캐주얼화

현재 비즈니스웨어는 수트, 셔츠, 넥타이, 구두, 벨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으로 비즈니스웨어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비즈니스 캐주얼웨어는 재킷과 긴바지로 구성되며, 이너웨어로는 셔츠 또는 니트가 활용된다. 넥타이대신 베스트, 헹커치프 등으로 장식성을 대체하고, 구두 대신 좀 더 개방적인 형태인 캐주얼한 로퍼 스타일로 코디한다. 벨트와 구두는 같은 색상으로 구성

하여 넥타이 부재에 따르는 장식성의 결핍을 보완한다. <그림 5>는 밝은 파란색과 흰색의 배색으로 청량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격자무늬의 셔츠로 장식성을 가미하고 있다. <그림 6>은 흰색의 칼라에 핑크색 바디스로 구성된 남성 셔츠로 화사한 칼라를 이용해 넥타이 부재에 따른 장식성을 보완하고 있다.

해외콜렉션 사례를 보면 반바지 형태나 스니커즈, 반소매의 재킷, 씨쓰루(see through) 소재의 셔츠 등 훨씬 더 이전 비즈니스웨어로부터 벗어난 룩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넥타이를 문양으로 대체한 사례, 자켓을 색상을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장식성을 부가한 사례, 비치는 소재의 성질을 사용하여 봉제선을 이용하여 장식성을 가미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그림 5>는 셔츠 및 자켓 대신 니트웨어를 착용한 모습이다. 셔츠의 칼라 및 넥타이가 부재한 대신 니트의 목선 및 앞 여밈선을 다른 색채로 구성하여 장식성을 부가하고 있다. <그림 6>은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고, 구성선 및 재단선 등을 활용하여 옷감의 겹침으로 인한 색채의 변화를 통해 장식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7>은 재킷을 세가지 칼라의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셔츠 및 넥타이 없이도 장식성을 발휘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 국내 비즈니스 캐주얼-마에스트로  
(출처: <http://www.maestro.co.kr>)



<그림 6> 국내 비즈니스 캐주얼-아놀드 바시니  
(출처: <http://www.ab.co.kr>)





<그림 7> 질 샌더(Jill Sander)  
2011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8> 디올 옴므(Dior Homme)  
2011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9> 질 샌더 2011 S/S  
(출처: <http://www/style.com>)

## 2. 쿨맵시 디자인 활성화 방안

2005년부터 정부와 전국 경제 연합회에서 일본에서 시작된 “쿨비즈” 캠페인을 주도한 결과 2007년도 쿨비즈에 대한 설문 결과 우리나라의 인지도는 59%로 일본의 94%보다는 낮으나 패션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일본의 19%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일단 확신이 서면 과감한 실천으로 놀라운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낸 사례들이 세계에 우리를 다이마직한 민족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쿨맵시 캠페인”의 성과는 자못 기대된다. “쿨맵시 캠페인”의 성공은 산업, 라이프스타일, 문화의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 1) 산업적 측면

패션산업체에서는 “쿨맵시” 의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자인 면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웨어의 생산 및 판매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섬유개발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섬유류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과정은 재료, 에너지 등을 투입하여 자원채취, 원부자재생산, 제품 제조, 유통 및 사용 폐기의 수명 주기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공기와 물이 사용되거나 오염되고, 쓰레기가 발생된다. 따라서 전과정의 단계별 투입, 산출물로 인한 잠재적 환경 영향을 전략적으로 평가, 해석하여 환경성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sup>27)</sup>

이와 같이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시스템상의 환경성 개선에 관한 산업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며, 타 산업에서 진행되는 산업 기술간의 융합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 2) 생활적 측면

환경부는 생활 속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왔으며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41개 지자체에 지역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결정되어 가정 사무실 온실가스 진단활동, 친환경 운전 캠페인, 그린리더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기후적응형 복장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기후적응형 복장은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sup>28)</sup>

적정 착의량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작업 능률이 최대가 되는 착의량으로 쾌적성

을 추구하는 것이다. ‘덥지도 춥지도 않다’고 느끼는 상태가 쾌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어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추구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는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착의량으로 방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착의량이다. 쾌적한 의복기후는 생체기능사용을 저하하여 환경적응기능을 퇴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운 환경에서는 약간 덥게 입고, 추운 환경에서는 약간 춥게 입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체온조절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여 생리적 적응 폭을 확대해야 한다.<sup>29)</sup> 생활 속에서는 불편하더라도 더운 환경에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 발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등의 부대 효과까지 겸비한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 3) 문화적 측면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문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남성복의 역사를 돌아켜본다면 우리가 이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집트인들은 한 장의 사각형의 천을 그대로 사용하는 복식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복식의 형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0)</sup> 그리스로마 시대인들은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sup>31)</sup> 복식에 있어서도 인체의 조화적 비례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트레이퍼리로서 합리성을 묘사하였다.<sup>32)</sup> 비잔틴시대의 복식은 종교적 금욕주의에 의해 몸을 완전히 감싸고 몸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을 이루었다.<sup>33)</sup> 고딕시대의 의복의 입체화 과정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복식을 창조하게 하였다. 고딕시대 이후에 비로소 바지는 남성용, 치마는 여성용이라는 고정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고정 관념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34)</sup>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식은 퍼

프, 슬래시를 사용해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두블렛의 끝을 뾰족하게 하여 작은 허리를 강조했으며, 엉덩이에 패드를 대어 여성 힙의 둥근 곡선을 반영하는 등 여성적 신체 특성을 반영한 X실루엣을 이루는 등 여성보다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성들이 ‘여성같다’라는 비판이 당대의 시에 나타나고 있다.<sup>35)</sup> 바로크시대에는 여성적 취향의 시대였다. 여성화된 남성복식 중 많은 비평가들이 주목한 스타일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인 러브록(love-lock)이었다. 1590년대 출현하여 30년간 유행한 러브록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sup>36)</sup>, 남성의 머리를 짧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로코코 시대 역시 환상과 우아함이 지배한 여성적 취향의 시대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전 시대의 남성복식에서의 장식성이 사라지고 현재의 비즈니스웨어의 원형이 남성을 지배하였다.

즉 비즈니스웨어의 역사는 의복의 역사 속에서는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하며, 근대 이후에도 지구 다른 편에서는 비즈니스웨어와는 전혀 다른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경제 계급인 부르주아 계층이 생겨나고 이들의 가치인 성실성, 유능함, 합리성, 실용성, 자제력, 극기를 상징하기 위해 모넬을 삼은 것이 고대 그리스의 영웅이었다. 그들은 그리스 조각상에 재현된 완벽한 신체를 의복으로 표현하고자 패드와, 심지 등 각종 부자재를 동원한 부분적으로 겹겹인 의복을 고안해 냈고 동시에 귀족 남성의 호화스러운 의복을 나타함, 폭정의 상징으로 추락시켰다. 이후 남성들은 의복에서의 장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고집하는 남성들은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였다. 새로운 경제 구조는 새로운 의복을 출현시켜왔다. 특히나 다원성이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유니폼이란 매우 인위적인 것으로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것이다. 근대 이전 치마를 입은 남성

을 바라보듯 미래의 후손들은 유니폼에 갇힌 이 시대의 남성들을 바라볼 것이다. 이제 정보화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기후 변화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문화는 자연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나라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이룩된 문화는 고유성을 갖게 마련이다. 우리는 자연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은 대상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갑옷과 같은 인위적이고 과장된 아름다움보다는 남성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재발견하고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아름다움인 것이다.

## V. 결 론

현 세계는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적, 과학적, 산업기술적 차원 그리고 예술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인의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대응방안을 실천하고자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의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 비즈니스웨어의 변화는 저탄소형 복장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패션업계에서도 ‘비즈니스캐주얼’은 패션업계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생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책과 의생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살펴본 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복장문화, 특히 남성 비즈니스웨어 문화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남성 비즈니스웨어의 기후적응형 복장문화를 일컫는 쿨맵시는 섬유 개발, 제작공정, 디자인 개발 면에서 딱딱한 넥타이의 비즈니스 슈트가 아닌 비즈니스캐주얼 착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슈트보다는 실용적이면서, 캐주얼보다 품위와 격식을 갖추어 비즈니스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는 쿨맵시는 단순히 옷 스타일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sup>37)</sup>

쿨맵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 생활적 측면 뿐 아니라 미의식까지도 저탄소형으로 전화하여 전방위 영역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저탄소형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쿨맵시”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기후변화 복잡 활성화는 향후 정부의 우선 순위 사업이 될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고, 일반인에게는 친자연적인 의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네이버 (검색어: 기후변화대응책), 자료검색일 2010. 8. 31. <http://www.greenfund.org/ccc/information/event>
- 2) 이민선 (2009. 8. 22). “쿨맵시”로 녹색 생활 첫 단추를, 자료검색일 2009. 8. 25.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3) 네이버 (검색어: 기후변화대응책), 자료검색일 2010. 8. 31. <http://www.greenfund.org/ccc/information/event>
- 4) 네이버 (검색어: 기후변화대응책), 자료검색일 2010. 8. 31. <http://www.greenfund.org/ccc/information/event>
- 5) 네이버 (검색어: 기후변화대응책), 자료검색일 2010. 08. 31. <http://www.greenfund.org/ccc/information/event>
- 6) 김대곤 (2009. 6. 19). “옷차림과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심포지엄, p.13.
- 7) 김영우 (2010. 6. 28). “녹색생활실천 정책홍보”, 쿨맵시 토론회.
- 8) 한국환경공단 (2010. 6. 2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쿨맵시 토론회.
- 9) 대상: EU27개국 및 크로아티아 시민 26,500명. 한국환경공단 (2010. 6. 2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컬맵시 토론회.

- 10) 조규수 (2010. 6. 28). “탄소성적표지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 컬맵시 토론회.
- 11) 이민선. 앞의 기사.
- 12) 환경부 변화협력과 (2009. 11.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컬맵시 정책 포럼』 회의 자료.
- 13) Hollander, A. (1994). *Sex and Suit*, N.Y.: Alfred A. Knopf, p.95.
- 14) 이민선 (2003).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1(2), pp.177-192.
- 15) 이민선 (2006). 권력구조가 복식의 성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6(5), p.99.
- 16) Sarah, K. & Jacqueline, M. (1998).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정소영 옮김 (1996). 서울: 삼신각, pp.120-126.
- 17) Hollander, A. (1975).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p.225.
- 18) 이민선 (2003). 앞의 논문, p.8.
- 19) Steel, V. (1985). *Fashion and Eroticism*, Oxford: Oxford Press, p.102.
- 20)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189.
- 21) 이민선 (2003).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 문화, *복식*, 51(7), p.29.
- 22) Moers, E. (1981). *The Dandy: Brummell to Beerbohem*, London: Secker & Waburg, p.62.
- 23) Byrde, P. (1992). *Nineteenth Century Fashion*, London: B.T. Batsford, p.98.
- 24) Hollander, A. (1994). 앞의 책, p.109.
- 25) 호요승 (2009. 6. 19). 옷차림과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심포지엄, p.68.
- 26) 위의 자료, p.68.
- 27) 김대근. 앞의 책, p.9.
- 28) 이병욱 (2009. 6. 19). 옷차림과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심포지엄, p.4.
- 29) 최정화 (2009. 6. 19). 의생활과 건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심포지엄. pp.26-40.
- 30) Horn, M. J. & Gurel, L. M. 앞의 책, p.43.
- 31) Clark, K. (1956). *누드의 미술사*, 이재호 옮김 (1982). 서울: 열화당, p.98.
- 32) 임법재 (1980). *인체비례론: 고대로부터 르네상스까지*, 서울: 홍익대학교 출판부, p.23.
- 33) Wilson, E.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17.
- 34) Horn, M. J. & Gurel, L. M. 앞의 책, p.189.
- 35) Ribeiro, A. (1984). *Dress & Morality*, London: B.T. Batsford, p.34.
- 36) Garber, M. (1992). *Vested Interests*, N.Y.: Routledge, p.28.
- 37) 원대연 (2009. 6. 19). 옷차림과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복장문화심포지엄, p.7.

## **A Study on Cool Mapsi, New Men's Business Wear**

**Lee, Min Su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form a dress culture that counteracts against global warming.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life culture innovation movement which develops and aims to diffuse a new type of business wear that helps the wearer adjust to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The new type of business wear is called "Cool-Mapsi." It is environment-friendly fashion which economizes energy used for air-conditioning, reduces green house gases and enhances our health. A person can endure an indoor temperature 2°C higher than usual simply by wearing an open neck "Cool-Mapsi" shirt, which would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air-conditioning by 1,600~2,900,000 tons and save 300 billion Korean won each year. The basic direction for "Cool-Mapsi" design is to use eco-high technology. High-tech materials to counteract to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are being developed. Casual business wear with an open neck helps to lower body temperature. "Cool-Mapsi" can only be activated by solving industrial, living and cultural problems. In other words, methods of improving environment-friendly factors need to be extracted and applied when developing high technology materials, diverse open form designs and a product-transport-consumer-disposal system. We also need to enhance our adaptability to climates by exposing ourselves to high temperatures in everyday life, and there is a need for conversion of aesthetic ideas, too.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history of business wear is a rather short period in the history of dress, and create a new aesthetic for business wear that considers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Key words: "Cool-Mapsi", global warming, industry, life, culture